남북접촉에 따른 제반문제 세미나

결 과 보 고 서

72. 1. .

「남북접촉에 따른 제반문제 세미나」
결 과 보 고 서

1. 주　　최 :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2. 개최일시 : 1971.12.20-12.22

3. 개최장소 : 타워호텔 202 호실

4. 주제 및 발표자

제 1 주제 ; 「남북적십자회담 경험에서 본 문제점」

정홍진 (적십자사 회담운영부장)

제 2 주제 ; 「적십자사의 기능과 한계성」

최은범 (적십자사 회담운영부 연구위원)

제 3 주제 ; 「남북접촉과 관계법 조정문제」

우재승 (중앙대 교수)

제 4 주제 ; 「남북접촉의 가능한 발전단계와 문제상황」

박동운 (한국일보 논설위원)

제 5 주제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대내적 충격과 태세정비」

김영국 (서울대 교수)

목 차

제 1 주제 ; 「남북적십자 회담경험에서 본 문제점」

주제발표 : 정홍진

주제논문 ——— (7)

발표 및 토론요지 ——— (21)

제 2 주제 ; 「적십자사의 기능과 한계성」

주제발표 : 최은범

주제논문 ——— (27)

발표 및 토론요지 ——— (39)

제 3 주제 ; 「남북접촉과 관계법 조정문제」

주제발표 : 우재승

주제논문 ——— (45)

발표 및 토론요지 ——— (55)

제 4 주제 ; 「남북접촉의 가능한 발전단계와 문제상황」

주제발표 : 박동운

주제논문 ——— (59)

발표 및 토론요지 ——— (72)

제 5 주제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대내적 충격과 태세정비

주제발표 : 김영국

주제논문 ——— (77)

발표 및 토론요지 ——— (87)

종합건의사항 ; ——— (88)

제 1 주 제

남북적십자 회담 경험에서 본 문제점

주제발표자 : 정홍진

사 회 자 : 박동운

제 1 주 제
「남북적십자 회담 경험에서 본 문제점」

주제발표 : 정홍진

〔주제논문〕

1. 会談의 経緯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崔斗善총재의 「남북이산가족을 위한 인도적 남북회담」을 제안하는 성명이 있자 8월 14일 북한적십자사는 韓赤提議를 환영하고 20일 판문점에서 수락통고문을 전달하겠다고 호응해 왔다. 그러나 韓赤側 제의내용과 북적측 수락문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한적측 제안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주기 위한」 문제에 최종목표를 둔 人道主義的 문제해결에 主眼을 둔데 반해 북적측은 「남북으로 흩어진 親友의 苦痛」까지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多分히 政治的 底意가 伏在한 내용이었다.

8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친 南北赤 파견원들에 의한 판문점 접촉은 순조로히 진행되어 9월 20일 역사적인 제 1차 예비회담을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에서 개최하는데 성공했고 12월 3일 현재, 제 11차 예비회담을 경과하고 있다.

회담초기에 보여준 北赤의 회담전략은 (1) 예비회담 과정의 무시와 (2) 정치선전면의 重視였음이 드러났다.

당초 北赤은 본회담의 議題에 해당하는 제의내용을 9월 20일

제 1 차 예비회담에서 다 털어 놓았고, 아울러 조속한 본회담의 개최를 促求하였다.

그리고 韓赤側이 제안한 예비회담 진행절차에 관한 合意要求를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들여 이른바 速決主義를 指向했다. 이는 예비회담이 北赤이 노리는 政治선전용에 가치가 없고 따라서 "革命的 意義"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예비회담 진행절차 문제를 討議하는 과정에서 北赤側은 공식 호칭을 요구하였다. (합의사항의 공동보도 방식을 주장하면서) 비록 韓赤側의 相互便宜主義란 一方的 방식의 採擇으로 일종의 慣例化되고 있으나 이는 기회있을 때마다 北赤側에 의해 隨時提起가 가능한 "정치적 留保事項"으로 남아 있다.

2. 会談에 臨하는 兩側基本態度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태도로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먼저 26년간의 단절상태가 가져온 상호신뢰의 缺如이다.

이데오로기의 相異, 언어구성의 차이는 思考類型의 変質과 그것이 갖는 소통영역의 단절마저 招来, 필요이상의 대결상황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대결상황은 상호 対決意識으로 定式化된다. 지난 제 3 차 예비회담때부터 토의가 시작된 본회담 개최일자의 결정을 두고 드러낸 양측의 상호불신은 바로 이같은 状況의 단면인 것이다. 北赤은 具体的인 일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에

서 「구체적 일자의 지정은 組織動員的 意義가 있는것」이라느니 「目的志向性 있게 하자」는 등의 저들 이데오르기와 직결된 用語를 駆使 社会的 意識形態만을 강조한 탓으로 個体的 人格主義가 갖는 思考類型에 필요이상의 대결이 소모된 결과가 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原則의 합의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받아 드려져 「제1차 본회담은 예비회담이 종료된 1個月以內에 개최한다」는 거의 구체적인 일자지정과 가까운 한적측 수정안으로 合意없이 사실상 妥結이 되었다. 이는 言語가 가지는 감정적 표현기능을 抹殺하고 오직 社会集団主義的이며 明白한 계획성만이 가지는 側面이 重視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本 会談議題에 관한 문제에서 兩側의 体制差異로 발생한 상호불신은 좀 더 구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第6次~第10次)

한적측이 본회담 의제로서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생사 및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문제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서신교환문제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재회알선 및 상호방문 문제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재결합문제 (5) 기타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등을 제의한데 대해, 북적측은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상호방문을 실현하는 문제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간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주고 상봉을 마련해 주는 문제등을 제의했다.

여기서 두드러진 차이는 議題의 대상범위에서 韓赤이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최종목표로 하는 家族의 고통해소만을 문제 삼은데 반해 北赤側은 가족은 물론 친척 친우의 고통까지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대폼 「자유로운 왕래와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그들은 「가장 절실한 고통이나 위난부터 해소하거나 구제해야 한다」는 적십자 활동 원칙에서 벗어났을뿐 아니라 혈연관계를 가진 이산가족의 고통과 헤어져 있는 친우의 고통을 「같은 뜻의 고통」이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조선민족의 감정에서는 가족, 친척 친우가 한 單語와 같다」는 등으로 例의 집단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北赤側 제의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가족찾기운동」은 하나의 인도적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가족범위를 벗어난 광범한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이산당시와 現在의 가족환경이 갖는 차이와 북한사회에서 가족관계가 갖는 미흡성을 카바하기 위해 조작한 계급주의적 입장의 발로로 간주된다.

북한은 이미 經濟的 및 물질적 관계에서만 모든 관계를 制度化하고 있다. 가족제도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지라도 경제적이며 직접적인 부양관계가 없으면 가족이 아닌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도 봉건적인 血緣관계를 중시한 광범한 가족의 개념이 잔재해 있다고 판단한것 같다.

그리고 「자유왕래」도 따지고 보면 비록 가족, 친척 및 친우라는 막연한 대상의 무제한 왕래는 아직도 한국적 현실에는 「위험」

이 뒤따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韓赤側은 판독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개념에 대한 북적의 최근동향(친척안에 가족포함되어도 가족안에 친척포함 안된다는 北赤代表 발언—제9차)과 방법상의 자유로운 왕래이지만 「일정한 수속절차」를 거치는(제9차)것이고 「친척의 왕래라고 하여 전체 인민의 자유왕래를 의미하는 것 아니다」(제8차)란 北赤의 설명에서 우리는 정치적 의미 이전의 분단상태가 낳은 思考類型의 본질적 差異에서 발생한 상호불신의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3. 問 題 点

이상에서 기술한 회담 경험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고 앞으로 제기될 문제점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회담에 임하는 兩側의 기본전략면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다.

韓赤側은 8.12 기본노선 즉 인도주의 정신이 극도로 강조된 적십자 원칙이 회담전략에 首尾一貫 관통되어 있는데 比해 정치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北赤전략이 어떻게 兩立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勿論 한적측도 「단계적인 발전」을 시사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측면이외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속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적 의미」에서의 脫皮를 통해 「대등한 의미」에로의 지향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北赤側 회담전략에서 흐르고 있는 정치적 의도와 표면적인 인도적 가장을 적절히 균형짓게 함으로써 본질적인 대립

관계에서 보다 상호 공통점을 발견해야겠다는 노력이 문제된다. 말하자면 현재 対角관계에 있는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상황의 상호보완을 통해 민족문제 해결에 본질적 접근을 모색해야겠다는 문제를 말한다.

4. 結　　語

지금까지의 회담경위에서 보면 상호 異質的인 体制差異에서 발생한 「思考類型」이 회담을 통해 상호 접근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에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根本的인 문제는 남북적십자 회담이 북괴 고유의 対南赤化 전략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서 충실한 해답을 마련해야겠다는데 있다.

<부 록>

1. 会談経過

가. 第1次豫備会談(71.9.20)

問題別	討議内容	
	韓赤	北赤
豫備会談進行節次	1. 豫備会談의 場所와 施設 2. 随行員数와 配置 3. 会議記録과 確認 4. 発言順序 5. 会議의 公開与否 6. 会議内容의 公表問題 7. 常設会談連絡事務所設置	豫備会談過程을 度外視 豫備会談進行節次 問題討議自体를 時間浪費로 看做 本会談에 関한 事項의 討議促求

나. 第2次豫備会談 (71.9.29)

問 題 別	討 議 內 容	
	韓 赤	北 赤
1. 合意事項의 確認		
2. 本会談의 議題	(1) 場 所 (2) 日 時 (3) 代表団構成 (4) 進行節次 (5) 議 題	(1) 場 所 (2) 日 時 (3) 議 題 (4) 代表団 成員 및 其他 節次問題
3. 本会談場所	兩側赤十字中央機構가 있는 서울~평양 輪番開催	板門店 板門店에서 始作하여 与件의 成熟後 서울~평양 輪番開催 共同発表問題討議에서 처음으로 公式呼称挙論

다. 第3次豫備会談 (71.10.6)

問題別	討議内容	
	韓赤	北赤
1. 本会談場所	本会談開催場所 決定에 따른 追加議題提議	韓赤提議에 同意
2. 本会談開催日字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豫備会談마지막에 合意決定하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原則에만 合意하고 다음 議題討議하자

라. 第4次豫備会談 (71.10.13)

問題別	討議内容	
	韓赤	北赤
本会談開催日時	修正案提議 本会談開催에 必要한 모든 準備가 成熟되었다고 雙方이 認定하는 時期에 討議決定한다.	71.12.10 10:00에 開催하자

마. 第5次豫備会談 (71.10.20)

問題別	討議内容	
	韓赤	北赤
本会談開催日時	従前主張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豫備会談 마지막에 決定固守)	自側指定日字 (71.12.10. 10:00) 에 同意要求

(合意事項 없음)

바. 第6次豫備会談 (71.10.27)

問題別	討議内容	
	韓赤	北赤
1. 本会談開催日時	修正案提議 ○第1次本会談은 豫備会談終了日로부터 1個月以内에 開催하기로 한다.	○修正案에 同意拒否 (다음議題討議로 移行하는데 合意)
2. 本会談議題	南北離散家族의	南北離散家族親戚 親友들의

問題別	討議内容	
	韓赤	北赤
	(1) 生死 및 所在確認과 消息을 알려 주는 것 (2) 書信交換問題 (3) 再会斡旋 및 相互訪問 (4) 再結合 (5) 其他 副随的으로 解決해야 할 問題	(1) 自由로운 来往과 相互訪問을 実現하는 問題 (2) 自由로운 書信去来 (3) 離散家族들을 찾아주고 相逢을 마련해 주는 問題

(合意事項 없음)

사. 第7次豫備会談 (71.11.3)

問題別	討議内容	
	韓赤	北赤
本会談議題	家族찾기運動의 対象範囲 및 順次性의 合理論展開	家族만이 아니라 친척 친우도 包含하는 無限対象論을 固執

(合意事項 없음)

아. 第8次豫備会談 (71.11.11 木)

問題別	討議内容	
	韓赤	北赤
本会談議題討議	○第7次 会談討議態度 堅持	○本会談議題에 対한 韓赤의 意中探索에 集中的인 努力 ○非公開接触의 必要性 強調

(合意事項 없음)

자. 第9次豫備会談 (71.11.19 金)

問題別	討議内容	
	韓赤	北赤
本会談議題討議	○議題의 対象範囲討議에서 離散当時의 家族環境 尊重意思 밝힘으로써 家族範囲에 伸縮性表示	○家族찾기運動 本質忘却코 階級主義的 立場露出 ○"家族 親戚 親友가 같은뜻" ○家族찾기運動의 大衆事業化 必要하다"

차. 第 10 次豫備会談 (71.11.24. 水)

問 題 別	討 議 内 容	
	韓 赤	北 赤
本会談議題	第 9 次討議態度의 持續	家族에 親戚包含不可 親戚包含하자 (独立議題로)

(合意事項 없음)

2. 合意事項

討議議題	合 意 内 容
1. 豫備会談場所 및 施設	場所—板門店中立国監督委 会議室 施設—雙方実務者間에 協議解決
2. 隨 行 員	数 — 10 名以内限定 配置—代表団 座席後面에 任意配置
3. 会議記録과 確認	豫備会談의 会議記録은 雙方 共히 便宜提供으로 相互確認
4. 発言方式	首席代表가 発言함을 原則 必要時 餘他代表도 発言可能

討議議題	合 意 内 容
5. 会談의 公開与否	公開原則(雙方合意면 非公開)
6. 合意内容의 公表問題	合意文書의 各己作成 相互確認後 合意内容을 各己公表(北赤은 共同報道主張)
7. 常設連絡事務所設置	自由의 집과 板門閣에 常設連絡事務所를 設置하고 直通 往復電話를 架設
8. 次期豫備会談決定方法	会談終了前 또는 常設事務所에 架設된 直通電話로 決定
9. 本会談의 議題	(1) 場 所 (2) 日 時 (3) 議 題 (4) 代表団 成員問題 (5) 其他 節次問題
10. 本会談場所	서울~평양에서 輪番開催한다. 本会談場所 決定에 따른 追加議題採擇(其他節次問題順에서 討議) 追加議題(韓赤側) (1) 代表 및 報道陣의 身柄保障問題

討議議題	合 意 內 容
	(2) 代表 및 報道陣의 便宜提供問題 (3) 〃 標識問題 (4) 〃 裝備 및 所持品 携帶問題 (5) 交通, 通信連絡問題 (6) 会談場施設問題 (7) 会談日程 및 滯在期間問題 (8) 会談以外地域에서의 活動保障問題

〔발표 및 토론요지〕

(발표 요지)

1. 상 황

가. 국제상황 : 미·중공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초기 수단으로 남북적회담 성공적 진행촉구

나. 남북기본입장 : 남- '남북적' 회담(인도적문제 해결 : 정치문제 해결 = 3:2)

북- '남북적' 회담(정치문제 해결로 유도)

2. "남북적" 회담중 양측 기본태도

항 목	남	북
1. 본회담의제	1. 단계적 실천 2. 기타 부수문제(?) 해결암시	1. 일괄처리(혁명적 처리방식노출) 2. 자유왕래부터 시작주장
2. 가족범위	1. 가족개념확대암시(친우배제) 2. 봉건적 혈연관계존재	1. 가족+친척+친우 주장 2. 집단의식, 계급주의적 입장노정
3. 본회담개최	1. 서울, 평양 본회담개최준비 진행 2. 미·중공정상회담결과와 관련시	1. 본회담개최준비 미진 2. 미·중공정상회담결과와 관련시(회담지연의 실질적원인
4. 회담중 대립	1. 회담전가책임 불가능 2. 호칭문제 거론기피 3. 체제차가 원인	1. 회담전가책임 불가능 2. 호칭문제유보가능암시 3. 체제차가 원인(성실성도 내포)

3. 문제점

가. 기타 부수문제처리(정치문제 해결암시)

나. 닉슨 중공방문시 한국문제(적십자회담 성격변화)논의결과 상호 기다림

다. 회담진행중 체제차로 상호 피해의식 대두(서울, 평양개최→북한자유화)

라. 북괴의 정치성에 대한 한국의 대처책

(토론 요지)

1. 남북적회담과 군사정전회담과의 관계

가. 현재까지 남북상호 이에 관한 언급 무

나. 한적측이 제의한 본 회담의 제중 기타부수문제에서 정치"레벨" 문제처리사항 암시

2. "남북적"회담의 한국측 기본입장

가. 인도적 문제처리에 일차주안

나. 전술적으로 북한체제 변화로 유도

다. 기타 정치적문제 해결암시

라. 통일문제와는 직결안됨

3. 자유왕래문제에 대한 양측입장

북괴-표면적으로 자유왕래부터 주장하나(정치적 일괄처리 저의):
명분, 체제적 취약점(북한자유화가능)으로 후퇴가능:실제

한국-단계실천(소재확인후 단계실천 : 명분+실제)

자유왕래 및 평양, 서울 본회담개최시 북괴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가능

(동·서독간의 '귀향권' '무국적'문제 참고필요)

4. '남북적'회담과 한국통일문제

한국-'남북적'회담을 '통일'과 직결시키지 않음(단계적 발전은 가능)

북괴-'남북적'회담을 정치회담으로 유도 '통일'과 직결시킴

5. 미·중공접근과 '남북적'회담

가. 남북 공히 1차-8차까지는 상호입장 및 저의 탐색과정

나. 9차부터 상호 회담진행 및 성공노력 간파(책임전가 불가능 →국제적 압력 및 국내적 압력)

다. 닉슨·중공방문시 한국문제 논의결과까지 상호 회담지연 전략 노정

제 2 주 제

적십자사의 기능과 한계성

주제발표자 : 최 은 범

사 회 자 : 신 일 철

제 2 주 제

「적십자사의 기능과 한계성」

주제발표 : 최 은 범

〔주제논문〕

Ⅰ. 序　　言

1945年의 祖国光復과 더불어 우리 韓民族에게 強要되었던 国土分断과 民族分裂로 因하여 過去 四分의一世紀가 넘는 긴歲月에 걸쳐 모든 「레벨」에서의 相互接触이 거의 杜絶되어 온 南北間에 今年 8月12日 大韓赤十字社의 主導的 提議로써 双方 赤十字社 代表들이 南과 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을 찾아주기 위한 "対話"가 始作된 것은 그것이 目的하는 바 人道主義的 事業의 측면에서만이 커다란 意義를 가질뿐 아니라 政治的 乃至 軍事的 또는 其他 모든 부면에서도 매우 重大한 事件임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結果的으로 이 運動의 対象 또는 受益者가 될 1千万 離散家族 当該者들은 勿論 다른 모든 国民들도 이번 南北赤十字接触을 우리 民族史上 劃期的인 擧事로 認定하고 歓呼와 期待속에 그 귀추를 注視하며 또한 나아가서는 対外的으로 보더라도 온世界의 耳目이 그 진원지인 서울과 平壌 그리고 板門店으로 集中되고 있다. 이것은 南北赤十字間의 交渉이 追求하는 離散家族찾기事業의 人道的 性質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事業이 成功하면 窮極的으로는 5千万同胞의 切實한 宿願인 国土統一이라는 民族的 大課業을 達成하기 위한 盤固한 基礎

가 構築되리라는 無限한 可能性이 豫見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重且大한 意義와 可能性이 包括되어 있는 南北赤十字 接触이니만치 거기에는 特히 交涉双方이 彼此間에 政治的利益을 될 수 있는 限 많이 爭取하려는 強烈한 意圖가 当然히 潛在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結局 이번의 南北対話는 源泉的으로는 政治的 事項인 特定한 問題를 놓고 双方이 "赤十字原則" 이니 "人道主義精神"이니 하는 普遍的인 競技規則으로 이를 흥정하고또 앞으로 이를 処理해 나가게 될 이른바 하나의 "対決"이라고 規定지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相対方이 이 世上에서 다루기 가장 어려운 部類인 共産主義者들인 만큼 于先 이미 提起된 主題를 客観的으로 公明正大한 人道主義的 事案으로 限定하고 또 이를 實定的으로 承認되고 確立된 赤十字原則으로 制約함으로써 赤十字的 管轄範囲 (Red Cross Jurisdiction)을 明確히 設定하고 또 이를 堅持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Ⅱ. 赤十字의 基本理念과 機能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赤十字思想은 1859年 伊太利 統一戰爭의 大会戰地였던 「솔페리노」戰野에서 있은 스위스青年「장·앙리·듀낭」이 数万名의 交戰両側 負傷者를 救療하여준 人道的 奉仕活動에서 비롯되었다. 「듀낭」 의 犧牲的努力으로 1863年에

国際赤十字가 創設되고 또 그 이듬해인 1864年에 最初의 戰爭犧牲者保護에 관한 제네바協約의 締結로써 世紀的 発足을 보아 過去 1世紀가 넘는 長久한 歲月이 흐르는 동안 조금도 中斷이나 挫折이 없이 文字 그대로 汎世界的인 人道主義運動体로 成長하여온 赤十字機構는 오늘날 온 世界万邦 위에 그 人道와 平和의 깃발을 나부끼고 있다.

赤十字의 目的은 人間의 苦痛을 輕減하고 또 이를 豫防함으로써 人類의 福祉를 도모한다. 赤十字는 또한 사람들의 相扶相助를 通하여 個個人의 마음속에 理解의 紐帶意識 및 友愛의 感情을 助長시킴으로써 結果的으로 憎悪과 敵愾心을 拂拭시키며 또 窮極的으로는 個人間에 集団間, 国家間에, 国民間에 平和의 理想을 增進시키는데 寄与한다.

이와 같은 崇高한 理念을 實現시키기 위하여 赤十字는 항상 人間을 尊重하고 그의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는 「人道」의 原則을 根幹으로 하여 苦難에 処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国籍, 人種, 宗教, 階級, 政治的見解, 其他 何等의 差別을 함이 없이 「公正」을 期하며, 敵対行爲나 紛争에 絶対로 介入함이 없이 「中立」을 堅持하며, 利得의 慾望을 갖지 않고 또 財産程度, 社会的地位, 또는 職業의 区別없이 모든 階層의 男女老少로부터 各者応分의 参与를 받아 어느때 어느 곳에서나 크고 작은 것을 가림 없이 모든 形態의 人間的 苦難의 犧牲者에게 고루 奉仕하는 것이다.

그런데 赤十字運動의 体制内에서의 人間苦難의 現代的 概念은 身体

的, 物質的인 面으로 부터 精神的 靈魂的인 面으로 그 力点을 옮겨가고 있다. 그리하여 血肉의 断切이나 家族의 離散으로 因한 그리움이나 근심 걱정 같은 煩腦는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疾病이나 欠乏과는 다른 次元의 苦痛이라고 보기 때문에 赤十字는 国際的인 尋人網을 形成하고 이른바 「사람찾기」奉仕事業을 遂行하여 그동안 多大한 實績을 쌓아 왔다. 이것은 바로 赤十字의 機能과 役割이 古典的인 事業形態에만 安居해 있지 않고 時代的要求에 副応해 새로운 課業을 発見하여 拡大되어 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現下 南北韓 両側 赤十字社에 依하여 推進되고 있는 「南北으로 흩어진 1千万家族 찾기」 運動은 말할 것도 없이 "離散家族의 再結合"이라는 赤十字의 傳統的事業의 범주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 問題에 관한 赤十字의 機能은 承認되었거나 確立된 国際協約의 規定과 国際会議의 決議事項 및 国際的 国内的 赤十字의 事業慣行과 措置에 根據를 둔다.

1949年의 제네바才 4協約(戰時에 있어서의 民間人保護)을 보면 離散家族의 児童福祉(才24条), 家族消息(才25条), 尋人照会 및 再結合(才26条)등에 관한 諸規定을 두었으며 또 이와 關聯하여 同協約에서는 特히 民間人尋人情報局(才136条~141条)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한 諸規定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法規는 關係締約当事国 相互間의 協助로 또는 赤十字国際委員会(ICRC)나 国内赤十字社 其他 中立的 人道主義事業団体의 仲介的役割에 힘입어 그 所期의 目的이 원활히 達成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네바諸協約国의 政府의 赤十字社 代表들이 共同参席하는 赤十字国際会議에서도 이러한 人道的課業의 成就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1952年「토론토」에서 열린 才18次会議의 決議 20號, 1957年「뉴데리」에서 열린 才19次会議의 決議20號 그리고 1965年「비엔나」에서 열린 才20次会議의 決議19號등 "離散家族의再結合"이라는 同一題目이 붙은 一聯의 決議事項을 採択하여 戦争이나 緊張対立으로 因하여 離散되어 相互連絡이 杜絶된 사람들의 問題가 지니는 人道主義的見地에서의 重要性과 緊迫性을 反復的으로 力説하고 나아가서는 그 解決을 거듭 促進하였다.

그리하여 特히 그 創設以来 悠久한 傳統을 자랑하고 또 万人의 信頼를 한몸에 계속 維持해 오는 ICRC에서는 여러 機会를 通하여 "離散家族의 再結合"의 概念을 規定하고 또 그 範囲를 設定하고 아울러 關係当局 및 国内赤十字社의 協助下에서의 効率的 解決을 勧告하는 趣旨의 呼訴를 発表하는 한편, 그 스스로도 才1次世界大戦에서 부터 最近의 여러 地域的 武力衝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事態에서 発生된 離散家族들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러모로 多大한 業績을 남겼다.

現今까지 赤十字의 事業으로 行하여져오는 離散家族問題解決의 諸段階를 順次的으로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1) 生死 및 所在의 確認

2) 家族消息傳達

3) 救護品小包傳達

4) 面会 또는 相互訪問

5) 再結合

여기에서 特히 "再結合"이란 單語의 뜻을 明確히 하기 위하여 国際赤十字의 会議나 그 機構에서 使用되는 用語를 參考할 必要가 있겠다.

即 英語로는 "Reunion" 또는 "Reuniting"이라 하고 또 仏語로는 "Regroupment"로 表記된다. 이 낱말들은 모두가 "흩어진 사람들이 原状대로 다시 만나서 서로 합친다"는 뜻임에 틀림없다. 故로 따로 떨어진 親子間의 경우는 어린 児童이 그 어버이에게 합치고 따로 떨어진 夫婦의 경우는 아내가 그 男便에게 합치고, 따로 떨어진 兄弟姉妹의 경우는 아우가 그 형에게 합치고, 扶養能力者와 被扶養者가 따로 떨어진 경우에는 後者가 前者에게 합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附言할 것은 항상 当事者인 個人의 自由意思와 利益이 優先的으로 考慮되어야 한다는 点이다.

Ⅲ. 赤十字事業의 限界性

赤十字事業의 本質을 올바르게 把握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根本理念이 되는 人道主義(Humanitarianism)의 概念을 定立할 必要가 있다.

人道主義는 形而上學的인 面과 形而下學的인 面, 두가지 側面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地上의 如何한 組織体도 진공속에 存在할 수 없다는 真理를 잘 알고 있다.

換言하면 어떠한 団体의 事業活動이라도 그것이 存立 또는 進行되는데 있어 時間的 場所的 制約을 免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趣旨에서 볼때 赤十字運動이란 形而下學的 意味의 人道主義라고 表現되어야 그 實効性이 保證된다고 하겠다.

또 한가지 重要한 것은 赤十字가 다루는 모든 人道的 問題들이 本来는 "政治的 事案"이라는 点이다. 仮令, 離散家族問題自体를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政治的 軍事的 対立의 結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方法이나 經路도 亦是 그 方面에서 発見되어야 한다 고로 제네바 諸協約을 制定한 外交会議나 또 前述한 決議事項을 採択한 国際会議에서는 政府「레벨」의 代表들에 依해 一旦 離散家族問題가 非政治化 乃至 非軍事化됨과 同時에 人道主義問題로 승인된 것이니 이는 말하자면 성질상의 전환작용이라 할 수 있겠다.

以上과 같은 点들을 考慮할때 赤十字의 「離散家族찾기」事業은 몇가지 제한밑에서 処理되어야 하는 것이 当然하다.

첫째로 대상상의 제한이다. 赤十字事業의 範囲속에 들어가는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있어서는 오로지 戦争이나 其他 外部的 不可避한 事情때문에 흩어진 "家族"만을 그 対象으로 삼아야 하며 그 밖의 사람의 問題는 排除되어야 한다.

家族關係가 없는 사람들 사이의 分散状態는 一般的으로 赤十字가 마땅히 相關하여야 하는 人道的 欲求(Humanitarian needs)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事業內容上의 制限이다. 앞에서 列擧한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이르는 단계적인 事業項目들은 모두가 赤十字機關의 仲介役割을 반듯이 必要로 한다. 고로 赤十字의 權限이 許容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能力이 미칠수 없는 범위의 業務, 仮令 "一般通行"이나 "통상우편"같은 일은 所管行政管署의 固有業務에 屬하는 것이니 사실상 실효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赤十字社는 이러한 水準에 있어서 創設的機能을 効果的으로 発揮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째 狀況上의 制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 26年間 거의 모든 部門에 있어 斷絶되어온 狀況에서 赤十字社가 最初의(?)接触을 試圖하고 있음은 一面 아직도 南北間에 政治的 軍事的인 緊張対立狀態가 엄존하고 있다는 客觀的 현실을 여실히 反證하기도 한다. 고로 앞으로있을 어떤 形態의 南北交流에 있어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国家安保上의 危險을 排除할 수 있는 최선의 方法이 講究되지 않으면 안된다. 赤十字社이든 其他 어떤 団体이든 安保規則에 順從함을 条件으로 하여 이러한 業務를 国家로 부터 受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째 基準上의 制限이다. 이것은 전술한 세가지 문제들과도 깊은 關聯이 있는 事項이다.

요컨대 赤十字는 항상 主觀的 價値判斷을 배격하고 特히 人道的 問題를 処理하는데 있어서는 客觀主義的이고 合理的인 姿勢를 堅持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家族의 範囲나 고통의 狀態를 規定함에

있어서는 客觀的 基準이 적용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感傷主義的 同胞論이나 利己主義的 民族論에 根據한 排他的 態度도 止揚되어야 한다. "휴머니티" 即 "人道"란 말 속에는 이미 人類全体를 指稱하는 뜻이 함유되어 있으며 "人道主義"는 世界人類 모두를 한 人間家族으로 여기고 또 "人類愛"라는 범주속에는 "同胞愛"니 "民族愛"니 하는 말이 溶解되기 때문이다.

N. 結　　語

그러면 왜 赤十字가 離散家族의 問題를 본연의 事業으로 다루게 되며 또 왜 이 問題가 적실하고 緊泊한 人道主義的 事項으로 되느냐 하는 것에 対하여 若干의 說明을 加할 必要가 있겠다.

赤十字의 奉仕活動은 人間의 幸福한 狀態를 保全하거나 또는 빼앗긴 幸福한 狀態에로의 復旧를 도와주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離散된 家族의 不幸은 그들의 가정 乃至 家族共同体가 他意에 依하여 해체되었다는 사실에 그 原因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정이나 家族共同体의 本質과 실재성은 그 成員, 다시 말하면 父母와 子女, 또는 配遇者끼리 同一한 場所에서 함께 日常生活을 영위하는 狀態에서 만이 維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客觀的事情때문에 불가피적으로 가정이나 家族共同体가 해체되고 또 가까운 血肉들이 分散되고 相互離別하여 서로 生死와 所在에 관한 消息이 完全 斷絶된 狀態에 놓여 있는 것은 실로 人道的 見地에서 볼때 切實하고 긴박한 不幸이며 고통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家族의 離散은 말하자면 "解体" "分散" "離別" "断絶"이라는 여러가지 고통의 加重状態이므로 그 苛酷度도 極甚하다고 認定하여야 할 것이다.

故로 赤十字는 모든 人間의 生活基礎인 가정 乃至 家族共同体를 再建함으로써 그 成員들이 幸福을 누릴 터전을 原状대로 復旧시킴을 目的으로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본연의 任務로 삼고 이를 단계적으로 遂行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観点에서 볼때 大韓赤十字社側에서 「南北으로 흩어진 1千万家族찾기」事業을 推進하기 위한 南北赤十字本会談의 議題로 내놓은 提案은 그 対象, 事業項目, 順次에 있어 赤十字 本然의 "離散家族의 再結合"사업의 취지에 매우 合当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対象의 범위속에 26年前 離散当時의 家族이 事實上 拡大되었으리라는 点을 감안하여 "가까운 친척"까지 包含시킬수 있도록 融通性을 보인 것은 赤十字의 軌道를 이탈하지 않고 매우 合理的考慮의 所致라고 하겠다.

끝으로 한가지 附言할 것은 흩어진 친척, 親友의 問題를 흩어진 家族의 그것과 동일시하려는 주장은 "고통앞에서의 사람의 平等"과 "고통의 緩急에 따르는 等差"를 混述케 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広義의 친척이나 親友는 그 범위의 設定에 있어 客観的 基準이 결여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란 것도 家族의 경우처럼

절실하고 본질적인 것은 못되므로 이 問題는 結局 平常的与件이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 다른 次元에 必要한 先決条件의 妥結을 거쳐서 赤十字의 平時 尋人事業이나 또는 其他 可能한 方法으로 処理되어도 무방할 것이라 본다.

赤十字가 취급할 수 있는 一般的 尋人業務의 항목순위를 별지 부록과 같이 參考로 붙인다.

(筆者=延世大政法大講師, 国際人道法)

< 附　　錄 >

赤十字가 取扱할 수 있는 尋人業務의 項目順位

Ⅰ. 戰時事業

1. 離散家族의生死 및 居所에 대한 調査確認 (N 26)

2. 離散者와 그 家族間의 消息交換 (N 25)

3. 離散者와 그 家族間에 純粹히 家族的 事項에 한하여 限定된 單語数도 한정된 書式에 依한 通信文(Message)의 교환 (N25)

4. 그 가족이 離散者에게 보내는 救護品小包의 傳達 (才 18, 19, 20.次 赤十字国際会議決議) (N 111)

5. 離散者와 그 가족간에 月間 葉書 4通, 편지 2通 以上의 通常書信. (N 107)

6. 離散者와 그 家族이 지정된 場所에서의 상봉면회 (1962. 11. ICRC 호소문)

7. 特殊한 契機에 離散者가 그 가족 또는 가정을 방문 (上同) 西獨慣例.

8. 離散者가 自由意思에 依하여 그 家族과의 再結合 또는 그 가정에의 復帰 (才 19 次赤十字国際会決議 20 號)

Ⅱ. 平時事業

9. 分散親戚 ; 1項부터 7項까지 적용, 8項은 該当없음 (現行赤十字国際尋人事業慣例)

10. 分散親友

1, 2 項만 적용 余他는 該当없음 (現行 赤十字尋人事業慣例)

〔발표 및 토론요지〕

(발표요지)

1. 적십자의 기본이념

전쟁시 / 평화시 } 인간고통 경감(인도성) - 정치성 배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영혼적 교통경감)

2. 적십자활동원칙 : (1) 국제협약(제네바 4개협약) / (2) 국제적십자사 결의사항 / (3) "적십자" 사업 관행 및 조치 } 의거

(적십자 사업원칙)

가. 인도성
나. 공정성
다. 중립성
라. 독립성
마. 봉사성
바. 단일성
사. 보편성

※ 평화원칙은 제외→궁극목적은 되어도 사업원칙 아님

「한적」 1955, ICRC 가입

「북적」 1956, ICRC 가입

(보편성 원칙의거 「북적」 ICRC가입, 그러나 제네바협약 각3조에의거 북괴에대한 법적승인과 무관)

3. 관계법규

- 1949 제네바 제4협약(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 -

가. 이산가족의 아동복지(제24조)

나 • 가족소식 (제 25 조)

다 • 심인조회 및 재결합 (제 26 조)

제네바에 "민간인 심인 정보국" (제 136 조 - 141 조) 설치 운영

라 • "적십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단계 (적십자 사업관행)

(1) 생사 및 재확인 (26 조)

(2) 가족소식 전달 (25조)

(3) 구호품 소포전달 (제 18•19•20차 적십자 국제회의 결의 • 제 111조)

(4) 면회 또는 상호방문 (1962•11. 1CRC 호소문)

(5) 재결합 (당사자의 자유의사 • 이익존중원칙 • 제 19 차 적십자 국제회의 결의)

※ 1) 분산친척 (재결합 불가능)

2) 분산친우 (생사확인 • 소식전달만 가능)

4 • 한계성

-적십자의 인도적문제들이 원래 정치 • 군사적 대결소산이므로 "재결합"문제해결은 "정치 • 군사문제" 해결과 유관함-

가 • 사업대상에의 제한 • 이산가족범위 -가족에 한정

나 • 사업내용상 제한=이산가족 재결합에 이르는 사업항목 해결은 적십자 기관 중계필요 (「국적」)

"일반통행 • 통상우편" 등은 소관행정관서 업무이므로 적십자활동의 한계성 노정

다 . 상황상 제한 : 국가최고정책, 국가안보에 귀속해야함 .

라 . 기준상 제한 : 객관적 기준적용요→감상주의적 동포론 . 이기주의적 민족론 태도지양해야함 .

(토론요지)

1 . 북괴공식호칭요구 : 「북적」의 ICRC가입 공식호칭 사용과 북괴 법적승인과는 무관

(논거) 제네바4개협약 각 3조에 규정

2 . " 남북적 " 회담과 휴전회담과의 관계성 :

가 . 휴전협정 3조 57항 (전쟁포로 교환위한 " 공동적십자소조 " 구성 규정)

원용가능→이산가족찾기운동 중계보장 위해

나 . 휴전협정 3조 59항 (실향사민 귀향협조 위원회 설치규정)

원용가능 (이산가족 재결합과 관련) →실향사민 미해결문제처리로 휴전회담 성격전환 예상

3 . 가족찾기운동과 국제보장문제

가 . 이산가족 찾기운동의 보장은 결국 " ICRC " 가 할것임 .

나 . 동운동의 위반사건→국제적 제재는 불가능하고 남북호혜주의의거해야함 .

제 3 주 제

남북접촉과 관계법 조정문제

주제발표자 : 우 재 승

사 회 자 : 신 동 욱

第 3 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제 3 주 제

「남북접촉과 관계법 조정문제」

주제발표 : 우 재 승

〔주제논문〕

序 論

南北 赤十字 会談이 開催됨에 따라 온 민족의 관심이 統一이란 民族的 課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事実이다. 이에 따른 우리의 法정비 問題는 필연적인 준비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글은 그러한 의미에서 작업의 방향만을 제시 하고저 한다.

이 글은 우리民族이 真正으로 統一을 원하는가? 하는 것은 묻지 않는다. 国民総和가 統一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흔이들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통일에의 길이 어떻한 길인지 필자는 모른다. 또한 統一이란 課業에 우리국민의 役割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는 確実한 답이 없다. 비록 대답이 있다고 해도 政策決定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내마음에 確信이 없다.

오직 필자로서는 여러가지 南北接触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법률조정문제만을 정리해 보았다.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할것은 自明하다. 그러나 이것이 연구의 시작이 되어 멀지 않아 보다 完全한 것이 나오기 바랄뿐이다.

필자는 처음에 南北接触의 類型을 정리하고 나아가서 그 유형에 따른 法의 정비 문제를 제시해 놓았다.

南北 接触의 理論的 背景

Ⅰ. 接触方法論的 分類

1. 政治的 協商

2. 機能別 接近

3. 人道的 接触

4. 強制的 統合

1. 政治的 協商

두개의 政治權力 단체가 직접 통합을 목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이 歷史上으로 성공한 예는 드물다.

그러나 이와 같은 会談 그 자체의 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 회담방법으로서

1) 南北 直接 協商

ㄱ) 판문점 또는 DMZ에서 協商

ㄴ) 会談장소로써 南韓과 北韓을 교대로 利用할때

ㄷ) 第三国에서 적촉할때

ㄹ) UN에서 회담할때

2) 南北 間接 協商

第三者가 仲裁者로서 協商에 介入되는 경우

ㄱ) 第三国에서

ㄴ) UN에서

2. 機能別 接近

1) 文化的 交流

ㄱ) 매스콤. 신문 라디오 TV 무전 전화 교류 및 서신교환

ㄴ) 학술서적 잡지 문화재교류

ㄷ) 신문기자 예술인

ㄹ) 각종 운동경기

2) 経済的 교류

ㄱ) 물물교환 무역 상호원조

ㄴ) 経済的 統合理論에 따른 제반 협조

3) 共同管理地域(DMZ) 利用에 관한 協調

ㄱ) 当該 地域 開発을 위한 国際聯合 및 그 専門機構의 원조를 南北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ㄴ) 直接的인 南北協商으로써 合意된 경우

ㄷ) 国際専門機構에 同時加入이 된 경우

4) 技術協調를 위한 교류

ㄱ) 相互 技術援助

ㄴ) 国際専門機構에 동시 가입되었을때

ㄷ) 南北이 直接 協商으로 合意가 된 경우

技能別 接近에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기능主義理論의 Spillover 개념이다. 즉 南北이 特定된 分野의 事業을 協商할 경우 그 事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되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 해결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와 같은 부수적인 要素를 많이 内包하고 있는 사업이야 말로 더욱 통일에 가까워지는 南北接触이라 할 것이다.

3. 人道的 接触

南北 赤十字 会談과 같은 순수한 가족찾기 운동에 따른 家族 친척 및 親知의 交流

4. 強制的 統合

平和的인 통합이 아닌 軍事力으로 失地를 수복하여 統合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部分的 수복과 完全수복으로 나눌 수 있다.

Ⅱ. 南北 接触의 節次的 段階

다음과 같이 일곱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1. 준비 단계
2. 회담 단계
3. 교류 단계
4. 부분적 수복단계
5. 통합준비 단계
6. 평화적 통합단계
7. 강제적 통합단계

위의 일곱가지 단계는 반드시 順序的이되지 못하며 둘 또는 셋 이상의 단계가 동시에 병행될 수 있다.

1. 준비단계

南北 接触에 따른 国民의 여론형성과 함께 참여의식을 고조시키고 국민 계몽을 목적으로 한다.

2. 회담단계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그 회담과 直接関係되는 제반 법률 정비 문제 특히 会談場所로서 南北韓을 교대로 이용할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말한다.

3. 교류단계

회담이 결실을 보아 直接 교류에 들어갈때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4. 부분적 수복단계

기습 작전으로 해서 失地를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5. 통합준비 단계

이 단계란 兩側에서 完全한 合意가 이룩되어 統合단계에 들어가기 前에 정비되어야 할 문제 들을 말한다.

6. 평화적 통합단계

完全統合을 이룩하는 단계로서 통일된 국가의 法질서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7. 강제적 통합단계

武力 行使로서 失地를 完全히 수복하여 통합시키는 경우 일어나는 문제들을 말한다.

專門分野別 法律問題研究에 따른 理論的 Frame work

Ⅰ. 정비를 위한 法의 分類

1. 基本法

憲法, 国籍法, 政党法, 中央情報部法등

2. 公 法

刊法, 行政法, 国家保安法, 反共法등

3. 私 法

民法, 商法, 社会, 経済法 全般

4. 国際法

条約問題 全般

休戦協定 문제

U N軍 문제

UNCURK 문제

U N同時 초청 및 同時加入問題

外資導入協約問題

国際商社問題 등

Ⅱ. 적극적 저촉과 소극적 저촉

적극적 저촉이란 明文으로 規定된 法律에 正面으로 상충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 저촉이란 간접적으로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을 내포한 경우를 말한다.

Ⅲ. 정비방안의 제반 類型

1. 司法的 정비

1) 法의 해석 및 적용면에서 정비 될수있으며 또한 有權해석으로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로서는 利敵行為에 대한 制限된 해석을 할 수 있다.

2) 裁判의 判決에서 새로운 判例를 냄으로써 정비가 될 수도 있다.

2. 行政的 정비

1)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法의 모순을 묵인해 가는 경우

2) 부분적 制限을 하여 特定人이나 特定地域에서만 自由로운 연구나 直接的인 남북접촉을 허가하는 경우

3) 完全 開放的 政策

国民이면 누구나 統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수 있도록 정비 하는 방법

3. 立法的 정비

1) 直接的으로 상충되는 命令이나 規制의 改正

2) 法律의 改正

以上 말한 것을 図表로 정리한다

接近方法論的分類 / 法의分類 / 節次的段階	政治的協商				機能別接近				人道的접촉				強制的統合			
	基本法	公法	私法	国際法	基本法	公法	私法	国際法	基本法	公法	私法	国際法	基本法	公法	私法	国際法
準備段階																
会談段階																
交流段階																
部分的収復段階																
統合準備段階																
平和的統合段階																
強制的統合段階																

結　　論

위에서 試図한 것은 專門分野別로 研究하기 위한 理論的 Frame work를 作成한 것 뿐이다. 고로 이것을 基礎로 해서 그 테두리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뜻 있고 具体的인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느낀것은 통일이된때 즉 両側의 政治的 意思가 完全히 決定이 되고 合意를 보았을 때와 통일이 될때 까지의 過程에서 일어날 수 있는 法律문제는 全혀 그 性格을 달리할 것이라고 느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法질서의 정비 및 정립은 한 国家社会가 指向하는 政治的 社会的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의 참된 의의를 찾을수 있다는 것이다.

제반 法律정비는 한 国家社会가 目的하는 바에 따라 左右된다. 故로 이 目的 설정이 근본 문제로 대두될 것은 불가피 하다. 문제는 그 目的이 可変的이며 政治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때에 한 国家社会의 最高意思를 과연 그 누구가 最終的으로 決定하는 가 하는 것을 인식치 않고서는 法의 어떠한 정비도 무의미 하게 된다는 것을 첨부하고 싶다.

끝으로 우리는 이 時点에서 北韓의 法制度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 기회에 이것을 좀더 学術的인 의무에서 公開하여 비교 연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발표 및 토론요지〕

(발표요지)

1. 남북접촉의 이론적 배경

1) 정치협상 2) 기능별접근 3) 인도적접촉 4) 강제적통합

2. 남북접촉의 절차적 단계

1) 준비단계 2) 회담단계 3) 교류단계 4) 부분적수복단계

5) 통합준비단계 6) 평화적 통합단계 7) 강제적 통합단계

3. 전문분야별 법률문제연구에 따른 이론적 구조

1) 기본법(헌법, 국적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등)

2) 공 법(형법, 행정법, 국가보안법, 반공법등)

3) 사 법(민법, 상법, 사회, 경제법 전반)

4) 국제법(조약문제 전반, 휴전협정, 유엔군 문제, 언커크문제, 유엔동시초청 및 동시가입문제, 외자도입문제, 국제상사문제등)

4. 정비방안의 제반유형

가. 사법적 정비

(1) 법의 해석 및 적용, 유권해석으로 가능

(2) 판례

나. 행정적 정비

(1) 현상을 유지하면서 법모순 묵인

(2) 부분적 제한, 특정인, 특정지에만 법을 배제하는 경우

(3) 완전 개방적 정책

다. 입법적 정비

(1)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명령, 규제 개정

(2) 법률개정

(토론요지)

1. 남북적십자 회담과 휴전회담과의 관계

가. 남북적회담이 전쟁종결로써 평화회담에 이르는 "중간자 역활" 기대(미, 중공입장)

나. 그러므로 이에대치한 국제법(휴전협정)정비 필요

다. 군사정전위에 남북이 대좌할때의 문제, 강화조약에 있어서의 국제법적문제 정리 필요

2. 상호방문, 자유왕래등의 수속절차는 양측 정부 "레벨"의 협상이 필요함.

3. 법조정을 객관적으로 대처키 위해 학자들에게 북한의 실정법을 연구할 기회를 부여해야함.

4. 분단상태의 동결이란 차원에서 국내법, 국제법 조정 필요성 대두

제 4 주 제

남북접촉의 가능한 발전단계와 문제상황

주제발표자 : 박동운

사 회 자 : 김영국

제 4 주제

남북접촉의 가능한 발전단계와 문제상황

주제발표 : 박 동 운

〔주제논문〕

1. 国家目標에 견주어본 問題提起

「離散家族찾기 運動」이라고 일컫는 「人道的 南北会談」이 開幕중이다. 南北接触 내지 南北交流에서는 想定할 수 있는 여러가지 項目中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먼저 選択된 느낌이다. 그러나 名分上으로는 対内外的으로 가장 떳떳하리라는데도 異議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観察은 또하나의 関聯事情과 더불어 現在의 南北接触이 結局에 가서는 単純한 家族찾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몇가지 交流項目의 同時的 交錯 或은 論題転移를 招来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게한다. 그 事情이란 「家族찾기」 会談이 将次 如何한 難関에 逢着하더라도 南北双方 어느편에서건 国際輿論과 国内의 統一接近 「무드」앞에 会談을 中断, 破綻시켰다는 責任을 지려고는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요컨데 우선 두개의 赤十字社간에 벌어지고 있는 南北接触은 오랫동안 分断双方간에 断絶되었던 直接対話通路 開設의 半永久化를 展望케 한다. 設令 離散家族찾기에 별다른 成果가 없다해도 두개의

赤十字社는 각기 双方地域의 政権에 대한 建議形式으로 모처럼 열린 対話의 門을 閉鎖하지 말것과 終局的인 家族찾기에 先行될 相互理解의 促進 및 雰囲気 改善의 方策등에 관한 合意를 進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루이 들로」가 指摘한바 「政治関係와 文化交流는 分離하는 것이 理想이기는 하나 事実은 그것과 달라서 政治的 影響力을 가진 사람이 그대로 文化的 影響力도 가졌다」고한 말을 想起할 수 있겠다. 「人道的」 「非政治的」 交流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고작해야 「最小政治的」인것 따라서 名分이 좋고 危険負担이 덜한것 정도이다. 그러다가 決定的 고비에 당도하면 드디어 「政治的」인 것이 前面에 「클로즈 업」되기 쉬운 법이다.

南北接触의 「政治性」은 그것이 潜在的인 것으로 남아있건 或은 前面에 두드러지건 政治戦略을 에워싼 南北간의 「知恵의 싸움」을 予見케 한다. 이때 最優先的인 要請으로 되는 것은 目的意識과 目標設定의 明確性이다. 終局的인 志向과 中間到達点의 計測이 明白해야 하며 모든 協商과 去来는 이에따라 系列化해야 한다. 目的과 目標와 個別的인 協商간에 合理的인 調整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不然이면 小巧나 断片的 小成에 汲汲하다가 드디어 「戦闘에 이기고 作戦에 진다」든지 「戦術에 卓越하고 戦略이 拙劣」하게 되는 따위의 의외의 結果에 逢着하게될 可能性도 없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러면 韓国의 国策을 論할적에 그 目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民主統一이고 즉 韓国(南韓)主体 北韓同胞解放方式의 南北統一의

達成이다。 그러자면 勝共実力을 培養해야 하며 앞으로 内治를 整頓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할일이 많다。

이로부터 70年 前半期의 「目標」는 다름아닌 現状凍結일 수 밖에 없다。 北傀의 「南朝鮮革命」試図와 또는 露骨的인 武力行使를 予防, 제어하면서 時間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無限定의 現状凍結이라면 統一不願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批判되어야 하겠지만 最小限 北傀의 武力 및 動員可能한 経済力이 相対的으로 우리보다 優越한 現段階에서는 1970年代 後半期 進入線을 劃하여 韓国으로서는 現状凍結이 바람직하다。 이를 具体的으로 풀이하자면 戦争을 回避하고 所謂 「革命的 大事変」 誘発같은 것을 未然히 防止해 나간다는 것이다。 南北接触으로 말하면 当分間 統一運動을 現実的 課題로서 性急히 本格化할것이 아니라, 우선 分断苦痛軽減을 향한 接近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主体的 需要와 客観的 要請의 調和를 생각케 한다。 完全統一 実現以前에라도 分断苦痛軽減을 念願하는 것은 겨레의 意志이다。 그러나 南北間의 敵対的 対峙와 相互不信으로 말미암아 分断 4半世紀를 経過하는 동안 그 双方間에 政権「레벨」 또는 政府의 뒷받침을 받는 社会団体「레벨」에서는 아직껏 이렇다할 公式的 接触이 없었다。 때마침 1971年들어 7月以後 美, 中共 接近気運을 包含한 国際情勢의 激動이 韓半島에도 緊張緩和, 東西和解, 平和共存등을 促求하는 새물결로 밀어닥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바람 世界의 「조용」도 없지 않으려니와 韓国의 能動的인 環境適応策으로서 南北離散 「家族찾기 運動」의 「이니시어티브」가 取해

겼다고 観察된다.

그렇더라도 現段階에서는南北交流의 漸次的 拡大를 推進하되 좀처럼 本格的인 統一運動에 말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局面에서 北傀의 立場은 뚜렷이 対照的이다.

2 . 南北의 「달레머」와 家族찾기의 險路

国土 両断으로 말미암은 南北離散家族들의 再結合을 도와준다는 것은 韓国의 立場에서 우선 人道的 見地로 보아 南北接触上 名分이 가장 좋고 한편 北傀도 名分上 이를 拒否할바 아니었으나 「달레머」는 쌍방에 고루 発見된다.

総体的으로 韓国의 与論은 그 事態発展을 「人道的」次元에서 다루려 하지만 北傀의 경우는 「革命的」 次元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그들 나름의 統一運動을 早速히 展開하려는데 難点이 있다고 할 것이다. 北傀의 「南朝鮮革命」路線은 아직껏 抛棄된바 없고 그 好戦的 体制生理는 旧態依然하다. 애당초 北傀의 思想体系에 있어 「家族観念」이란 「封建的 思想잔재」라고 排斥되는 바이고 또 「人道主義」란 이른바 「부찌 부르죠아 思想잔재로서 階級意識을 마비시키려는 毒素」 정도로 看做되는 형편이다.

設令 離散家族 再結合을 위한 南北赤十字社間의 協定이 調印된다고 仮定하더라도 그 다음에 닥쳐올 問題提起가 간단치 않다.

먼저 韓国의 「달레머」와 放心못할 問題点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① 흔히 越南者数를 5百万이라고 仮算하고 있으나 막상 家族찾기 申請書類를 接受할 때면 그 수효가 極小数에 不過할 것이 틀림없다. 본시 「5百万」이란 数字자체가 誇張되었다는 것은 且置하고라도 大多数 越南者들의 주저心理가 벌써부터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在北家族을 애타게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申告했다가는 그 在北家族에 共産党의 迫害 또는 利用道具化 強要等 弊害를 끼치게 될까 두려워 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人道主義란 動機못지않게 結果를 重視해야 마땅할 것이다

② 数十万에 달할 것이 틀림없는 越北者問題가 있다. 그들은 挙皆라 해도 좋으리만치 北傀의 「工作員」구실을 할 수 있겠으나 이 反面에 越南者들은 많은 경우에 「思想武装」을 欠如하고 있다

③ 情報 謀報戦에서도 우리측에 弱点이 露呈될는지 모른다.

④ 韓国의 友邦들에게 발뺌口実 또는 두다리걸치기의 論拠를 줄 수 있다.

⑤ 国論 및 党論 分裂可能性 「気分的」 또는 「感傷的」 統一論議의 대두可能性

⑥ 会談에 蹉跌이 생기든지 副作用이 惹起되는 날이면 責任論争이 誘発될는지 모른다. 예컨데 「타이밍」이 適切치 않았다든지 反共態勢를 弱化시키고 民心을 공연히 動揺케 했다는등 내지 「独善独走」 印象에 결쳐 異論이 紛紛하게 될까 憂慮되는바 없지 않다.

다른 한편 北傀도 만만찮은 「코스트」와 「리스크」를 각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① 申請節次 実態調査段階에 접어들면 그 閉鎖社会에 구멍이 뚫린 꼴의 体制동요 思想統制弛緩이 招来된다. 이에 앞서 家族찾기 위한 南北赤十字社 本会談을 서울과 平壌에 交互 開催할 때의 民心衝撃도 마찬가지이다.

② 그동안의 戦争「히스테리」를 正当化할 口実이 없어지며 漸次로 統制緩和 要求를 싹트게 할 것이다.

③ 自由의 바람

④ 共産圏 背景勢力의 対韓観이 変化하며 따라서 北傀의 暴力革命路線에 대한 支持熱이 冷却되어 갈 것이다.

⑤ 共産党이 술곧 배격해온 家族観念 人道主義 그리고 「人間性」이라고 불리우는 「非階級的」 情緒가 보급되면서 「思想教養」의 공든 塔을 巨視的으로 붕괴에 이끄는 단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⑥ 越南者 家族들에 대한 非人間的 迫害의 罪過를 満天下앞에 드러내게 되는 「이미지」損傷과 宣伝上의 「마이너스」

⑦ 家族찾기運動에서 韓国(南韓)측에 「이니시어티브」를 빼긴 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어색한 「제스처」 그들은 政治的으로 一種의 「기습」을 당한 꼴로 되었다.

以上에서 보아온 両側의 「딜레머」에 비추어 家族찾기 運動이란 可謂 「名分問題」로 될지언정 「実質問題」로 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알맹이 있는 効果를 좀처럼 期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南北이 赤十字社를 내세워 모처럼 開通한 直接対話通路는

다시 폐쇄되지 않을 것이다.

3. 南北交流의 項目配列과 発展段階

赤十字社 「레벨」의 南北会談이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그 局面打開는 쌍방정부에 대한 建議를 거쳐 論題転移와 南北交流項目의 再配列에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最悪의 경우에 戦争誘発등 事態로 想定못할바 아니지만

원래 協商과 交流에는 相対가 있는 법이므로 一方的 需要만으로 推進할 수는 없다. 이러한 眼目에서 南北交流의 項目은 쌍방이 모두

① 名分도 떳떳해야 하지만

② 「코스트」와 「리스크」가 적고

③ 아울러 実利가 있는 것부터 策定하고 이어서 漸次的인 拡大를 志向하는 것이 合理的인 考察로 되게 마련이다.

요컨데 南北交流는 政治的 統合에 앞서 「非政治的」 (正確히 말하여 最小政治的) 接触·交流로 分断苦痛을 경감하면서 漸進的인 統一基盤의 構築·積立을 志向해 나가려는 것이다. 同時에 그것은 民族的 同質性의 保存 異質化의 防止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또 그 客観的 環境은 東西和解 平和共存속에 進展되는 바깥世界의 国際文化交流의 영향과같이다.

南北交流의 項目選択과 그 合理的 配列을 위해 우선 8.15解放以後 南과北의 政界, 学界, 言論界 그리고 国際政治무대에서 散発的

으로 挙論되어온 여러가지 交流項目을 羅列해보면서 韓国의 立場을 中心으로 그 問題点 내지 利害得失을 検討해 보고자 한다.

① 離散家族찾기

南北에 離散된 失郷私民과 그 家族들의 安否確認 書信交換 南北面会所의 設置등이 包含되며 더 나아가서는 相互訪問 내지 再結合을 내다 볼 수 있겠다.

그러나 「再結合」이라는 概念의 徴表가 同居와 生活基盤의 同一化를 의미한다면 이는 完全統一의 実現 이전에는 좀처럼 이루어 질것 같지 않다. 뿐만 아니라 北傀側은 家族뿐만 아니라 친척 더구나 親知까지 대상삼아야 한다고 주장 했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北傀側 工作員들에 대한 南韓의 門戸開放처럼 될런지 모른다. 勿論 우리측 人員도 北韓에 갈 수 있겠으나 両地域의 思想教養과 조직적 統制의 強度를 比較의 基準삼아 利害得失을 論할적에 現段階에서는 韓国(南韓)측이 不利함을 免치 못할 것이다.

하기야 이러한 「人道的」 교류의 範囲를 우선 「家族」에만 局限시키고 本会談場所를 両地域에서 交代하며 또 「実態調査」를 광범히 自由롭게 進行시킨다면 그때의 利害得失은 앞서 지적한 理由로 해서 南北이 맞먹게 되리라고 내다볼 수 있다. 南北 両体制의 試練으로 될 것이다. 첫 始作의 표방으로서는 좋으나 難点도 적지 않다.

② 記者交流

特派員 派遣에 그치지 않고 言論機関의 支局支社 交換設置 新聞購読의 相互自由化를 내다보아야 한다. 방송청취 自由化, 新聞通信, 放送記者들의 来往許容이 당연히 附随되어야 할 것이다.

記者, 言論交流는 相対的으로 우리측이 有利하고 北傀側이 주저를 免치 못하게 될 것이다. 記者 特히 選抜된 言論人들은 어디가나 自由분위기와 활달한 取材活動을 갈망하며 問題感覚이 또한 尖鋭한 職業的 生理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皮相的인 안내관광등에 좀처럼 현혹되지 않는다. 解放後의 경험도 記者의 越南은 많았으나 越北은 거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北傀의 독재폐쇄社会에 대해 自由開放社会의 優点을 自信할 수 있는 것이다. 最悪의 경우를 想定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신문사는 예외없이 社内編輯陣과 審査機構를 갖추고 있다.

③ 体育人 交流

南北韓 体育人들의 親善競技 또는 교환에 이어 国際 「올림픽」大会에의 南北韓 単一「팀」派遣을 내다보게 된다.

이것 역시 우리측이 有利하다 北傀地域에서는 体育人이야말로 전문技術職과 더불어 「思想教養」이 덜 침투된 部類의 사람들이다 体育人의 生理와 그 동안의 経験을 想起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올림픽」에 対処한 単一「팀」構想은 家族찾기와 本格的인 記者交流에 앞서 대단히 빨리 実現될 可能性이 있다.

또 그것은 現在의 人道的 南北会談이 난관에 봉착할 可能性을

상정할 적에 우리가 미리 마련할만한 안[illegible]이라고 생각되기도한다.

④ 政治性이 거의 없는 分野의 学術交流

가령 言語学, 考古学등 人文科学系統과 生物学, 地質学등 自然科学의 諸分野

한마디로 無難한 交流이다. 그러나 狭義의 역사학이나 문학이라면 共産圈内에서 「思想性」이 유달리 強調되는 分野라는데 留意해야 할 것이다.

⑤ 非政治的인 国際会議 또는 「유엔」 専門機構에의 共同参加

예컨데 「제네바」에 本部를 둔 国際赤十字社의 会合. 「파리」에 所在한 「유네스코」本部가 周旋하는 文化交流会議등 迫切한 当面課題인데다가 우리가 기피해야할 必要性은 想到되지 않는다

⑥ 物資交易과 技術交流

北傀가 그동안 北韓地域에서 벌여온 悪宣伝에 비교하면 우리側이 이 방면에서 거둔 成長 및 発展을 誇示하는 좋은 機会로 될 것이다.

⑦ 芸能分野 특히 民俗芸術의 交流

北傀의 水準도 相当하지만 어차피 民族的 同一性 意識를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또 自由의 바람을 北韓地域에 스며들게 하는 一助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⑧ 視察団 交換

⑨ 친척 및 親知의 相互訪問

交流項目의 순서배열에 보듯이 이것은 미리부터 서둘바 아니다 家族찾기와 同時的으로 併行시키면 어느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커다란 混乱만 誘発되고 말것이다.

⑩ 政党 社会団体間의 교환적인 会合

더 나아가서 相互主義 原則下의 他地域 活動許容을 展望할 수 있으나 그쯤되면 벌써 「交流」段階를 벗어난 政治的 統合運動의 本格化라고 볼 것이다.

⑪ 宗教人 交換

北側의 가장 아픈 弱点을 건드리게 될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韓地域에는 단하나의 教会 寺刹도 남겨지지 않았다 오직 北側가 対南선전상 기만적으로 「朝鮮基督教聯盟」등 有名無実한 看板을 残存시켜둔 程度이다. 「비겐」資料도 念頭에 둘 수 있을 것이다.

⑫ 観光自由化의 実現

이 観光自由化는 分断苦痛 軽減의 劃期的인 里程標로 될 것이다. 相互間에 南北의 名勝地와 故郷의 都市와 마을을 아무런 신변위협도 느끼지 않고 찾게 되는 날이면 이에 附随하여 家族 친척 親知와의 相逢宿願도 自然스럽게 풀리게 될것이다. 또 그程度가 되면 南北이 저마다 安保負担을 크게 덜 수 있다. 긴장완화는 不問可知로 될 것이다. 観光自由化는 政治的 統一以前

에 分断苦痛을 軽減하며 統一基盤을 築成해 나가는 交流段階의 目標線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게다가 観光文化란 본시 自由開放社会의 証明이다.

4. 平和的 統一接近의 段階設定

家族찾기運動의 正確한 位置賦与는 平和的 統一接近努力의 出発信号라는 巨視的 眼目에서만 可能할 것이다. 問題提起의 縁由가 国土両断으로 설명되는 동시에 民族의 비원이 終局的인 南北統一의 具現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平和的 統一接近의 段階設定은 다음과 같이 展望된다.

① 긴장완화의 制度化

이것은 国際協定이건 그 以前에 大国間의 묵시적 合意건 혹은 南北間의 힘의 「均衡」을 향한 自力保障의 相互理解 이것을 莫論하고 두가지 実質的 内容을 예견케 한다. 우선 「現状凍結」이고 곧 이어서 「相互承認」이 따르리라는 것이다.

② 南北間 직접대화通路의 開設

먼저 名分있는 표방하에 말문이 열린 다음에는 결국 対話通路가 常設機構化를 내다보게 한다.

③ 非政治的 (正確히 말하면 最小政治的)

交流부터 着手되는 南北交流의 実現 및 漸次的인 拡大

그 内容項目은 앞서 分説했지만 요컨데 크게 보아 人道的問題 板門店의 軍事停戦委 存在様式의 再検討를 포함한 軍事的 問題 物資交易등 経済的問題 그리고 文化的 問題로 나눠볼 수 있다.

④ 마침내 政府「레벨」에서 進行된 実務的 協議의 開始

⑤ 南北間의 유대의 制度化 또는 対外的인 聯合形態의 摸索 形成

⑥ 政党, 社会団体活動의 両地域에 걸친 相互主義的 許容

⑦ 相互間에 報復의 우려가 없고 体制差가 완화 接近될 때에 이르면 南北의 두개 代議機構의 合同会議体 構成 내지 終局的 統合을 위한 安全保障条件附의 総選挙実施

우리는 現時点에서 統一의 平原을 向한 遼遠한 行進의 才1步를 내어디딘 셈이다 勿論 이 行進앞에는 숱한 難関과 險路 우여곡절이 있을 것을 미리 覚悟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如何한 경우건 이미 시작된 그 行進은 国際与論과 国民의 統一念願에 비추어 中断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東西古今의 역사적 경험이 일깨워 주듯이 「変革은 갑자기 도래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는 道理를 항시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70年代 前半期에 戦争만 회피 또는 예방된다면 70年代 안으로 分断苦痛을 劃期的으로 軽減할만한 南北交流의 本格化가 可能할 것으로 예견된다.

〔 발표 및 토론요지 〕

(발표요지)

1 . 남북적십자회담 교착 타개책

가 . 남북적십자회담 성격전환 (휴전회담과 관련)

나 . 남북교류 항목의 재배열 및 선제의 (무력도발 억제로 유도)

2 . 남북교류 우선순위 결정기준

가 . 명분성

나 . 최소위험부담율

다 . 실리가 있는것 부터

라 . 최소 정치적

마 . 민족동질성 유지

바 . 남북긴장 완화

3 . 남북교류 우선순위

교류항목	제의시기	유의사항	비고
1 . 이산가족 찾기	1 단계	친우포함은 북괴의 대남공작기반 재결합은 정치타결 없이는 불능	친우까지 포함은 한국불리
2 . 기자교류	1 단계 (남북적회담 진행시)	북한 언론 부자유에 충격	한국유리

교 류 항 목	제 의 시 기	유 의 사 항	비 고
3 . 체육교류	1 단계 (적십자회담 교착 . 성공시)	친선경기 , 단일팀 구성형태 가능 . 북괴 체육인 ∘ 사상교 약 ∘ 월침투	한국유리
4 . 학술교류	2 단계	언어학 고고학 , 생물학 , 문화재관리 지질학 , 천문학 민속학	역사 , 문학은 유의
5 . 비정치문야	2 단계	국제적십자 총회 및 기타 국제학술 관계회의	북괴사실상 인정문제관련
6 . 민속예술	2 단계		
7 . 물자교역,기술교류	2 , 3 단계 (적십자회담 교착 , 성공시)	남북사회체제 경쟁유도	한국유리
8 . 관광단교환	3 단계 (적십자회담 교착 , 성공시)	남북명승고적 순례 연령제한 (연소자 , 연로자 한정) 신변보호등에 관한 상호협조 필요	한국유리
9 . 정당사회단체 교환적회합	4 단계	정치문야 타결후 가능	

(토론요지)

1 . 남북적십자회담 진행중 남북 취약점 비교

한 국	북 한
(1) 월남가족 등록기피 경향 (2) 재북가족의 공작활동과 재남가족의 사상적 취약성 (3) 감상적 통일논의로 국론분열 가능 (4) 북괴에 대한 법적승인 문제 대두 (적십자회담 성격전환시)	(1) 이산가족 실태조사로 체제동요 (2) 서울 , 평양 본회담 개최로 폐쇄성에 충격 , 자유화 촉진 (3) 전쟁지향정책 비판대두→체제분열 (4) 혁명노선에 대한 공산권 지지 감소 (5) 인도적 가족관념 대두로 사상교양 사업교란

2 . 72-74 년까지의 정치공백기를 이용 북괴의 긴장격화정책 대두 가능하다 . 이에 대처키 위해 남북적 회담을 성공시켜 무력도발 억제로 유도필요 (72-74 까지 남북분단 고정화 대책 필요)

3 . 북괴의 정당 사회단체교류제의는 상당시기동안 피하는 것이 유리함

4 . 70 년대 전반기 전쟁만 회피 , 예방 통제저지하면 분단고통을 경감할 남북교류 본격화 가능함 .

제 5 주 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대내적 충격과 태세정비

주제발표자 : 김 영 국

사 회 자 : 신 일 철

제 5 주 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대내적 충격과 태세정비

주제발표 : 김영국

〔주제논문〕

序 言

1970年 건국기념일을 맞이하여 朴大統領이 国内外로 表明한 이른바 8·15宣言에 뒤이어 今年 8月「韓赤」 崔総裁가 提案한 南北家族찾기運動 그리고 지금까지 10餘 차례에 걸친 予備会談의 進行은 4半世紀에 걸쳐 경색된 統一의 気運에 한가닥 突破口를 차지려는 融通性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国内外的 歓迎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現在 進行되고 있는 南北赤十字社間의 予備会談에 대한 国際的評価와 国内的 反応間에는 相当한 距離가 있다고 생각된다.

「冷戦의 종언」「国際解氷 무드」 「平和共存」 「戦後時代의 終息」등으로 集約되는 国際的 政治潮流를 탄 国際的 与論은 国赤会談을 政治会談으로 飛躍 拡大解釈하려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와 反対로 国際潮流를 逆行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씻지못하고 있는 北傀와 대치하고 있는 国内的 反応은 매우 慎重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国内外的 評価와 반응의 괴리를 감안해서 이번의

南北間·家族찾기 運動이 国民에게 주는 충격을 分析하고 社会文化的 側面에서 앞으로 있을것으로 予想되는 南北接触에 対備한 態勢整備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一. 対内的 衝撃

国赤의 南北家族찾기 運動의 提案은 누구도 予想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国民은 지금까지 경색된 対決状態에서 統一을 위한 융통성을 나타낸 점에 대해서는 一般的으로 歓迎의 뜻을 表示하고 있으나 会談의 主体와 提案의 内容 및 会談過程에 대한 反応은 多様한것 같다.

1. 統一意識에 대한 衝撃

戦後 4半世紀동안 国民意識속에 内面化되고 있던 統一意識은 「反共統一」 「北進統一」 「失地回復」 「勝共統一」 등의 口号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短時日内의 全面的 統一을 指向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意識에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変化가 없어보인다.

그러므로 비록 統一을 위한 전초적 探索活動이라 할지라도 北韓赤十字社와 会談을 위한 接触을 한다는 것은 一般 国民에게는 커다란 衝撃이 아닐 수 없다.

万一 現在와 같은 接触이 継続되고 또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 接触의 範囲가 拡大되어 간다면 지금까지 우리 国民의 意識속에 内面化되고 있는 統一意識은 한낱 感傷的 統一論에 지나지 않게 될 것

이다

事実 独逸에 있어서의 接触過程의 歷史를 想起해 볼때 지금까지의 우리의 統一意慾은 実践手段을 考慮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感傷的 側面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제 会談을 통한 接触을 하게 됨에 따라 国民은 従前까지의 統一意慾을 어떻게 解消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集約된 見解를 갖지 못하게 된것 같다.

2. 安保에 대한 関心

国赤会談이 進行되어 감에 따라 安保에 対한 関心이 漸高되어 가고 있다. 会談이 進行되고 있다고 해서 北傀側의 好戦性에 어떠한 変化가 생기고 있지는 않다.

会談의 進行中에도 言論機関이 밝히는 北傀의 対南工作에는 아무런 類型的 変化가 없다.

即 国赤会談에 관한 報道를 除外한 北傀에 관한 報道만을 본다면 緊張 対決状態는 여전히 継続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状況속에서 対北傀 強硬策과 逆行한다고 解釈될 수 있는 平和的 会談은 安保에 대한 念慮를 새로히 나타내게 했다.

現在 論議되고 있는 案件의 内容은 가장 人道的 次元의 것이며 또한 가장 慎重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까닭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対共態勢에 変化가 생기고 있다고는 보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会談이 어느程度 進展되어 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副作

用을 우리는 予想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感傷的 統一意識이 支配的인 現実에 비추어 볼때 安保에 대한 忌憂는 当然하다고 보겠다.

勿論 安保에 대한 関心은 国赤会談으로만 높아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国赤会談은 安保에 関한 関心을 더욱 높였다고 보아진다.

3. 統一論의 再検討

国赤会談開催後 날이 갈수록 一般国民의 関心이 적어지고 있는 反面 統一問題를 둘러싼 研究活動이 活潑해졌다.

各種 세미나나 発表会를 통해서 들어난 統一論議는 이제 従前까지의 感傷的 統一論을 脱皮하고 새로운 方向을 模索하고 있다

識者들은 우리의 伝統的 統一意志를 어떻게 現実의 国内外的 与件下에서 実践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는것 같다.

우선 現実의 打開策으로 「統一」 概念에 対置될 수 있는 用語로 「融合」이라는 用語가 登場했다.

이것은 独逸의 成功的인 東西関係의 漸進的 改善에서 着想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接触期에 접어든 独逸의 경우 오늘날 「統一」이라는 用語는 「東西独関係」로 代置되고 있음을 想起해 보아서이다.

다른 한편 統一의 理念에 関해서도 再検討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自由民主主義를 超克하는 새로운 理念의 模索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이것도 亦是 現実의 膠着状態를 打開하기 위한 構想의 하나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二 態勢整備

国赤会談은 現時点에 있어 統一에 接近할 수 있는 唯一한 通路이다.

이러한 前提에서 볼 때 国赤会談의 成功的 支援은 国民的 課題이다

우리는 勿論 国赤会談이 失敗했을 경우에 대한 모든 対備策도 講究해야 하겠지만 一次的인 力点은 이 会談을 期必코 成功시키고 또 有利한 条件으로 成功시켜야 하겠다는 점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 몇가지 対備策을 생각해 본다.

1. 接触意義의 認識

이미 말한 바와 같은 感傷的 統一意識으로 因해서 国赤会談을 統一과 直結시키려는 思考定型은 現時点에서 絶対로 삼가해야 할 것으로 안다.

統一에 이르는 過程에 있어서 国赤会談은 가장 前哨的 接触에 不過하다. 独逸의 경우 오늘날과 같은 政治会談에 이르기까지 非政治的 次元에서 無数한 接触이 直接 間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接触은 60年代 全般에 걸쳐서 끈질기게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時急한 것은 接触의 評価를 国民이 올바르게 해야 할

일이다.

接触은 우리의 統一意慾을 実行하기 위한 技術的 過程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接触이 곧 統一과 連結될 수는 없다.

더구나 国際赤十字社가 할수 있는 일에는 限界가 있고 家族찾기 運動이 끝나면 그 機能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点에 비추어 앞으로의 問題도 하나씩 하나씩 有関集団間의 접촉을 통해서 段階的으로 이루어지리라는 認識을 깊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 새로운 象徵의 案出

「反共統一」 「勝共統一」 등의 口号는 어느 意味에서 自由民主主義 理念과 統一理念이 結合된 象徵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接触을 通한 統一을 予想할 때 이러한 象徵은 새로운 象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自由民主主義를 国際的 立場에서 冷戦의 状況속에서 解釈해 왔다. 冷戦時代의 自由民主主義는 自由陣営에 挑戦하는 모든 共産国家에 대한 挑戦的 理念으로 作用했다.

万一 이러한 国際的 立場을 固守한다면 모든 共産国家를 敵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自由民主主義의 解釈은 現実的으로 妥当하지 않다 이러한 解釈에는 国家的 아이덴티티 (Identity)가 稀薄할 뿐더러 挑戦的 側面이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

会談을 통한 接触이 앞으로 活潑하게 予想될 경우 国家的 主体性을 強調하고 挑戦的 性格에 融通性을 加味한 새로운 象徴이 案出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象徴은 国民의 統一理念을 集約하고 平和的 会談에서 高地를 차지함에 있어서도 큰 役割을 할 것이다.

3. 統一에 対備한 教育의 再編成

여기서 말하는 教育은 반드시 学校教育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学校教育은 넓은 意味의 国民教育의 一部이다.
지금까지의 統一과 関聯된 모든 教育은 政府의 善導形式을 取해 왔다.

그리고 그内容은 安保를 為主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接触을 통한 統一에의 段階的 接近을 감안한 教育으로서는 適合치 않은 점이 들어나고 있을뿐더러 앞으로는 그것이 더욱 크게 들어날 것이다.

統一教育은 反共教育으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北傀集団의 存在를 아주 無視하고 韓半島가 事実上의 우리의 領土이며 北韓住民이 우리와 같은 国民이라는 点을 強調하는 立場에서 北韓에 대한 客観的 事実을 밝혀주는 教育은 매우 重要한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教育은 北韓糾弾을 置重하고 北韓의 文化社会的 側面에 관한 事実을 거의 알리지 않았다.

이런 点으로 보아 文公部가 11月25日부터 施行하기로 한 「外国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사무처리요강 改正案」은 北韓에 관한 客観的 研究 및 国民教育을 위해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展望된다.

4 . 国民的 参与

앞으로 当分間 予想되는 接触은 非政治的 差元 주로 文化社会的 差元에서의 接触일 것이다

이번의 接触主体는 国際赤十字社라는 人道的 民間団体였거니와 接触의 幅이 넓어짐에 따라 言論機関 経済団体 宗教集団 体育団体 学術団体 芸術団体등이 主体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어떤 団体가 먼저 接触을 하게될 것인가는 状況에 따라서 決定될 것이거니와 時間이 経過함에 따라 언젠가는 接触할 것이 予想된다.

이렇게 된다면 国民은 누구나 直接 間接으로 接触業務의 一翼을 担当하는 셈이 된다. 即 国民은 오늘날 反共業務의 一翼을 担当하듯이 接触業務의 一翼을 担当하게 된다.

成功的인 接触은 統一与件造成의 成功을 뜻한다.

이렇게 展望해 볼때 言論機関은 戦略的으로 매우 緊要한 位置를 차지한다고 본다. 오늘의 国赤会談에 있어서도 言論機関만이 恒久的으로 参与하고 있다.

言論機関도 우리社会의 集団의 하나이다. 이렇게 볼 때 北韓関係 事実의 報道와 与論의 善導目的을 위해 北韓部를 新設하거나 段階

的으로 調査部의 北韓調査를 強化해야 할 것으로 안다.

5 . 安保措置의 融通性

南北間의 接触이 더욱 어려운 安保問題를 提起함은 事実이다 事実 南北間의 接触의 頻度가 많아지고 幅이 넓어짐에 따라서 安保問題를 加重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때 安保措置가 따르지 않는 接触은 事実上 無意味한 것이다.

그러나 南北間의 接触이 시작되고 있는 이 時点에 있어서 冷戦型 安保措置를 그대로 適用할 수는 없을 것이다.

国赤의 接触도 마지고 본다면 従前의 安保措置에는 抵触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安保는 北傀侵略封鎖를 目的으로 하는 統制的 措置를 為主로 하는 것이었으나 앞으로의 安保는 接触에 対備한 技術的 措置에도 力点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現行의 関係法의 改正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形態로든간에 国民이 接触의 成功을 위해 参与할 수 있는 길을 封鎖하지 않는 融通性을 가져야 할 것이다.

結　　言

国赤会談의 展望은 매우 流動的이다

또한 그 会談이 成功的으로 이루어진다손치더라도 갑자기 統一의 展望이 밝아지는 것도 아닐것이다.

事件自体로 보아서는 劃期的 事件이라 하겠으나 統一問題에 対한 論議가 오랫동안 「타부」視 되어온 우리의 社会文化的 風土속에서 衝撃的 反応은 일어나지 않고있다.

여기서는 앞으로 接触期가 올 것을 予想해서 接触의 頻度와 幅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몇가지 問題点을 指定해 보았다.

〔발표 및 토론요지〕

〔발표요지〕

1. 대내적 충격

가. 통일의식에 대한 충격: "반공통일" "북진통일" "실지회복" "승공통일" 등의 기존통일의식에 충격 - 사회분열 촉발우려

나. 국가안보: 적십자회담중 북괴의 선전공세는 한국의 감상적 통일논의 촉발우려→안보에 대한 관심점고시킴

다. 통일론 재검토단계: 기존통일개념 재검토단계잔입

→ "융합" 개념 대두(자유민주주의를 초극할 새로운 이념 모색)

2. 태세정비

가. 접촉의 의의인식 및 계몽: 「남북적」회담통일과 직결(감상적 통일론)시키는 사고유형 배제계몽

나. 새로운 상징의 안출: "반공통일" "승공통일" (냉전상황하의 개념)→새로운 평화적 상징" 안출필요

다.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재편성: 통일교육 실시(북한의 객관적 인식, 통일에의 단계적 접근방향 인식)

라. 국민적 참여: 언론기관, 경제단체, 종교단체, 체육단체, 학술단체 예술단체로 남북접촉에 대처키 위한 준비책 마련필요

마. 「냉전적 안보조치」→접촉에 대비한 「기술적 안보조치」필요

(토론요지)

1. 기존통일개념의 실천은 국제적으로 고립자초할 것임
그러므로 "남북적" 회담과 더불어 새로운 통일개념의 국민계몽이 선결문제임

2. 통일논의의 분열을 막기위한 사회단체의 활용방안 모색필요

3. 승공교육에 있어서 남북민족 동일체감을 불러이르키도록 새로운 전환이 필요

(종합건의)

1. 통일론의 단계적 확대

가. "북한" 잡지창간→북괴사상공세의 방출제역할

나. 신문지면에 북한 사회면을 객관적으로 보도
(프로그램, 내용면은 정부통제)

다. 관계학자 들에게 북한자료 제공

라. 공산권관계 통신사 설치

2. 새로운 민족적 가치관 정립

가. 교과서 개편

나. 매스콤의 질적향상 위한 관계실무자 세미나 개최(통일원주관)
"필요"

다. 민족주의 교육으로 전환(식민사관 배제)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교육 실시

라. 새로운 통일개념 국민계몽

3. 적십자회담 지원책 수립

가. 이산가족 실태조사(생활실태 포함)

나. 군사정전회담이 군축 및 평화회담으로 전개될 경우 지원책 강구 (적십자회담과 유관)

다. 일본내의 진보파인사에 대한 비공식 접촉 한국 인식시킴

※ 참고: 1. 남북대화 〃통로〃 개설에 따른 장단기 대책(안) - 71.9

2. 〃남북적〃 회담 진행중 대두될 정치문제 대한 대책(안) - 71.11 을 보완 완료예정임